

## 이긴자 일대기 [13]

거제도 61포로수용소에 빨갱이들이 대동군 초대 치안대장을 지낸 바 있는 조희성 주님을 제1번으로 숙청대상을 정해놓고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이중으로 된 철조망을 넘고 넘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온 미군인 김아열 선교사에게 부탁하여 우익청년들이 많이 있는 65수용소에서 2백 명의 청년들을 지원받아 61수용소, 62수용소(실패), 63수용소, 64수용소 등 차례로 뒤집어 었는데 성공하여 악질 공산분자를 색출하여 영장으로 분리수용하였습니다.

수용소 정화작업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나서, 1952년 6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거제도에는 친공 포로만 남게 하고 반공 포로는 육지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지극지극한 생지옥과 같은 거제도 수용소를 떠나던 날, 엘에스티 선상에는 온통 눈물바다로 화했습니다. 환희와 오열의 눈물을 흘리는 포로들은 해방감으로 “대한민국 만세” 하고 소리 높여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조희성 주님은 ‘포로 아닌 포로를 석방하라, 반공 포로 석방하라’ 하는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헬서를 써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장, 유엔 등에 제출하였는데, 이 건의가 관철되어 마침내 정부에서 반공포로를 석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반공포로 석방 환영식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북 영천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 반공포로 12만 명의 대표로 조희성 주님이 답사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연설문을 손수 작성하여 그 동안 생생히 체험했던 공산주의의 악랄함을 전 세계에 폭로하였습니다. 포로가 아닌 20살의 젊은 대학생이 인민군에게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이북으로 끌려가면서 당한 고초와 설움, 총살 집

행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거제도 포로수용소까지 가서 받은 약소민족의 설움, 수용소 내에서 수없는 폭동과 아비규환 속에서 계속되는 죽음의 고비를 당해야 했던 기막힌 내용을 시간의 제약으로 대강만 열거하여 원고에 담아 읽어 내려갔는데도 그곳에 참석한 귀빈들은 물론 포로들도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입니다.

조희성 주님이 답사(答辭)를 읽을 때에 이승만 박사도 울고 프렌체스카 여사도 울고 그 당시에 장관들도 다 울었습니다. 이는 한 포로의 설움이면서, 또한 한국 민족 전체의 비극을 대변한 것으로서 지금도 그 연설문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보존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철조망』이라는 전쟁영화도 조희성 주님을 주인공으로 하여 제작된 반공영화였던 것입니다.

## 석방 후 그리운 고향으로

조희성 주님이 경북 영천에서 반공포로 제1차로 석방되어 고향 김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는 아들이 온다는 통보를 받고 김포 군청 광장에서 거행된 석방 환영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아들을 앞에 놓고도 못 알아보고 “우리 아들이 어디 있냐?”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는 것이었습니다. 625전쟁의 시련 속에서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어 단련되고 단련된 몸이라 언뜻 보아서는 못 알아 볼 정도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은 집에 와서도 어른들로부터 “너 농동자가 바뀌었구나.”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고비, 사선의 고비를 수없이 넘고 보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린애로 보여졌으며, 정신력이나 마음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당할 수 없는 강하고 강한 마음으로 다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일백오십 만의 신자를 이끌었던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님이 강단에 서서, “625사변은 이긴자를 배출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당시에는 박 장로님 자신이 고생한 것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박 장로님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이긴자의 길을 걸었던 조희성 주님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한국 땅에서 구세주가 출현할까봐 지레 짐작하고 전쟁을 일으켜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의 음흉한 계락을 간파하고 전쟁의 환란을 이긴자를 키우는 연단으로 되레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가 곧 이긴자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 한 사람의 한국청년이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포로 아닌 포로생활에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진 고초를 3년 동안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고향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쉬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포로생활 때문에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서 학교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학교가 전쟁으로 인하여 부산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대학 2학년 때 이미 육법전서를 다 통달해 버렸고 또 전쟁 중 무수한 사선을 넘으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더욱 골뎠히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심경의 변화로 신학대학에 편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한신학교는 김치선 목사의 피난생활 때 부산에서 두 해 정도 분교로서 구실을 하다가 휴전협정 이후 9월쯤에 서울 본교로 복귀되었습니다.

주님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잘 아는 장로님을 만나 그 장로님의 소개로 미군 향만 경비대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부두의 미군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된 것

입니다. 당시는 전쟁 중이라 미국에서 많은 군수물자와 구호물자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많은 한국인 보급관들과 관계자들이 빼돌려 사사roi 착복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주님은 유창한 영어 솜씨로 미군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으로부터 신고 오는 군수품의 하역작업과 반출될 때의 물품을 일일이 대조하여 체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통역관 겸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부정사건이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 한번은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보니 5억환이라는 거금이 방안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5억환이라면 당시 부산에서 몇백 안가는 거부가 될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소 물욕이 손톱만치도 없는 사람인자라 그런 것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싸가지고 다음날 출근하니 아니나 다를까 한 트럭 운전수가 손목시계를 가둬 신고 나가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차를 세워 창문으로 돈을 던져주면서 “아무리 미국 사람들의 물건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시계를 빼들린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한국인 모두가 도둑놈이라고 할 것이 아니냐?”하고 타이르고 물건을 원위치에 돌려놓았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미군들은 “한국에도 당신같이 훌륭한 청년이 있느냐?” 하면서 감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줘, 구호물자의 원조를 해해야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고 전쟁 피해국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도 있었습니. 한 사람의 한국청년이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원조하는 나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 대동군 치안대장을 역임한 조희성님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1952년 중반에 영천 수용소로 이동 후 석방된 증거 자료

이 영상은 1952년 7월 영천 소재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던 반공포로의 귀환을 환영하는 경상남도의 한 지역에서 개최된 행사 장면을 담은 영상이다. 6월 21일 유엔 군사령부는 27,000명에 달하는 ‘민간억류민’ 석방계획을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에 의하면 ‘민간억류민’은 전선에서 북한인민군의 포로로 억류되었던 이들로, 이번에 석방하는 전원은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되었거나 전투 중에 유엔군의 필요에 의해 보호 감시를 목적으로 수용된, 당시 남한 주민으로 입증된 이들이라고 한다.

6월 29일 영천포로수용소는 제1차로 1,8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고, 이들을 29일 오후 9시부터 30일 오전 4시까지 부산을 향하여 출발시켰다. 이들은 석방되기 전 이들에 대한 위문과 앞으로 이들이 ‘자유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싸우도록 격려하기 위한 행사가 영천 제14포로수용소에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최창순 사회부장관, 제8군 사령관 밴프리트 장군, CAC사령관 크리스트 준장, 영천지구 사령관 헬로렘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결사멸공’이라고 쓴 머리띠를 맨 석방자들은 태극기를 어깨에 메고 행사 중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유엔군 당국은 이들에게 30일분의 식량을 지급하고 의료 등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고, 행정당국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직업알선 등에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장소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행사 장면을 볼 때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출소 직후 진행했던 행사와 유사

한 집회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것 자체는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뿐 한미 간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었다.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석방하는 전략은 정전협상 초기부터 미국의 정책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로 1952년 6월에서 10월까지 총 39,464명이 석방되었다. 그런데 유엔군과 공산 측 간 포로가 교환되고 포로송환협정이 체결되자 이승만은 1953년 6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유엔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이 시점에 약 35,500여 명의 반공포로들이 7개 수용소에 있었는데 경비병력의 다수는 한국군이었고, 헌병총사령부의 지휘와 경비병의 묵인과 협조 하에 27,388명이 탈출했다.

이승만의 독단적인 ‘반공포로 석방’은 정전협정 체결이 임박하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주길 원하는 한국정부와 정전회담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미군)의 의지의 충돌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 참고문헌

「捕虜一部釋放 南韓出身二萬七千名」, 『경향신문』, 1952년 6월 24일.

「自由天地로 돌아온 民間人 決死滅共군계 盟誓」, 『경향신문』, 1952년 7월 2일.

김보영,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과 한미교섭」, 『梨花史學研究』38, 2009.

출처: kfilm.khistory.org/?mod=episode&&iframe=Y&MOVIE\_EPISODE\_ID=1777&cont=sum&c2=1

## 성경속에 기록된 &lt;영생&gt;은 우리 몸의 불사(不死)를 말한다

생자멸멸(生者必滅)이라는 말은 죽음 앞에 굴복한 나약한 인간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인간이 죽지 않을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영생교 승리제단의 주장에 대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일반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소위 성경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나 불경을 읽는 불교인들까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이나 불경에 대해 무지하며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조차 모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우선 성경상에는 수많은 장수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아담	930세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계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에녹	365세
므두셀라	969세
라멕	777세
노아	950세
셈	600세
아르박삿	438세
르우	239세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위에서 보면 현대로 점근할수록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인

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서 오늘날에는 100세까지 살기도 힘들어졌을까?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래 969세까지 산 므두셀라도 결국 죽었는데 영생교인들 니네들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애? 다 죽고 말지.”

그러나 이는 <인간 죽음의 메카니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발상이다.

인간이 죽는 원인을 성경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욕심이 일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약 1:15)

즉 인간 사망의 원인은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고로 ‘나’라는 자아가 생각만 해도 죄가 축적되고 진아(眞我=양심=하나님의 영)가 되는 생명력이 점차 약해져 죽게 되는 이치를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노아, 아담 그리고 므두셀라가 장수한 것은 그만큼 체내에 축적된 죄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후대로 갈수록 수명이 짧아진 것은 조상의 유전죄까지 이어받았기 때문인데 이는 죄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구체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오늘날 인간 수명이 100세 미만인 것은 체내에 축적된 죄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선악과가 육천년간 장성하여 태산 같은 죄로 축적된 것이다.

아래의 성경구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 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이사야 65:20)”

## 인간 사망의 원인은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죄)에 있다

백세에 못되어 죽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래 구절의 성경속에 기록된 <영생>의 의미는 죽어서 영혼이 영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실제적인 불사를 말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아래의 성경구절을 봐서도 알 수가 있다.

▽너희가 성경을 삼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요한복음 5:38)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디도서 1:2)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 3:22)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

▽씨를 것이 씨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전 15:54)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라(계 21:4)

참고로 장수자는 동양에도 등장하는데 <장자莊子>에 등장하는 팽조는 은나라 말엽에 767세였다고 하고 노자는 <사기>에 200세로 기록되어 있다. 또 방중술의 원류로 알려진 남파의 시조 유해첨은 600여 세를 살았고 전진교 중에 오류파라는 일파를 만든 오중하는 수제자인 유헌양에게 비전을 전수한 것이 207세 때였

다.(서기 1787년)

한편 중화민국에서 1928년 6월 달의 『상해신보』에 실린 250세의 노인 이정운은 257세까지 살았다. 그가 죽은 후 제자들에게 의해 <250세인 이정운 노인의 불로장수 비결>이라는 긴 제목의 책이 발간되었다. 현재 이 책은 대만의 자유출판사에서 복간되어 있다.

이처럼 인간의 장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인간의 불사영생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하신 약속이다.

불경에도 미륵부처님이 출현하면 모든 중생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이 해탈성불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未來世 佛出現時 國土所有一切衆生得壽命長 (미래세 불출현시 국토소유 일체중생 득수명장)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미륵부처에게서 내리는 감로(甘露)로 인해서 가능해지며 감로는 인간의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죄(업, 카르마)를 제거해 준다.

◎是甘露者 卽眞解脫(시감로자 죽진해탈, 대반열반경 5권): 감로를 내리는 자가 참해탈자이다.

◎無上甘露味 不生亦不死(무상감로미 불생영불사, 열반경 8권): 위없는 감로를 맛보는 자는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백세 미만에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인간이 백세도 못살고 죽는 것은 그의 죄값으로 인한 결과였다. 이는 인간속의 죄만 해결되면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15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15

공중신은 구세주가 아니다!  
God of the sky in the air is not the savior!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신이라 (에베소서 2:2) /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12)

After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demonic spirit who now works among the sons of disobedience (Ephesians 2:2) / Against spiritual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Ephesians 6:12)

공중하늘에 있는 예수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다른 사울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3~5)

Jesus in the heavenly places said to Saul on the road to Damascus,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Acts 9:3~5)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눅 10:18)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Luke 10:18)

사망권세를 잡은 자는 곧 마귀이다 (히브리서 2:14) He who has the power of death is the devil (Hebrews 2:14)

내가(예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18)

I (Jesus) am alive for ever and ever, and I have the keys of death (Revelation 1:18)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34)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on earth, but a sword (Matthew 10:34)\*